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45호 현대불교

29

2011년 7월 20일(음 6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데 왜 컴컴하게 사십니까

**염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문)** 저는 14년간 연화 불교상조 일을 해 오던 중 2010년 1월부터 불교 TV 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국토상조 충북 청주지점을 맡게 되어 불자님들에게 정례 일체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 내용은 돌아가신 영가님들의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시켜 드리는 일인데, 시신을 대하거나 염습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가시는 영가님과 유족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요?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나름대로 지극하게 마음을 내면서 한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답)** 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와서 한 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철이라 하였습니까마는 저 들에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뿌리가 아주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있어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뿌리가 죽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몸을 벗는다고 해서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돌이 아닌 것이니라. 본래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느니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죽으면 그 의식이 살아 있을 때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니, 자기가 살면서 온갖 탐진지에 의식들이 다 몰려 있다면 미혹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의식이 밝고 자유로워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안다면 더 차원을 높여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니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을 하며 살았는가가 하는 것이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하고 대단하다 할 지라도 한 순간의 꿈입니다. 한 순간의 꿈에서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간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삶에서, 윤회의 굴림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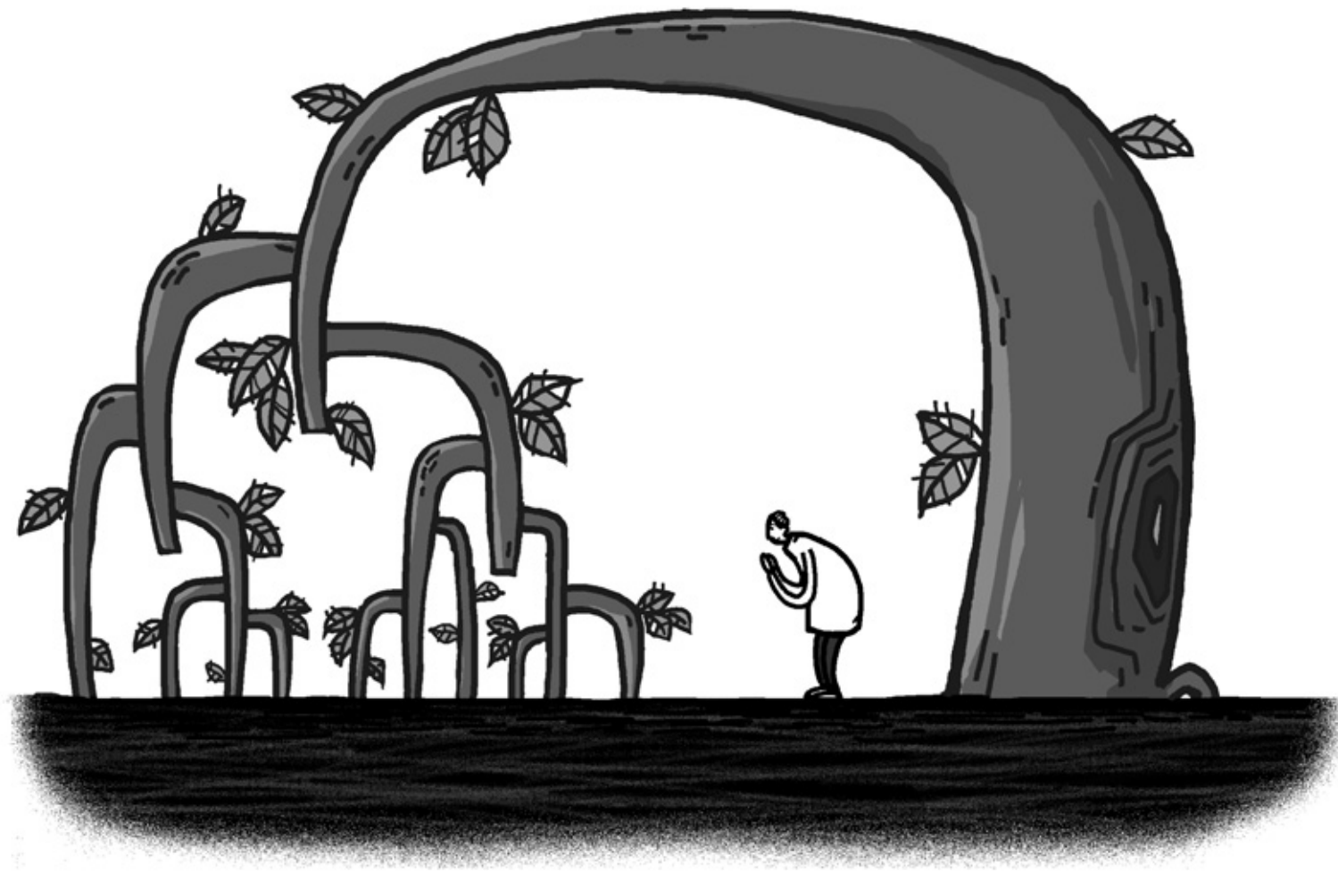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컴컴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들이 나온 근원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근본, 즉 주인공을 받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나온 그 자리에다가 다시 믿고 진실히 맡겨 놓을 때, 맡겨 놓는 동시에 그것이 연결이 돼서 간절한 그 한생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영가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부처 자리는 오고 감도 없고 나고 죽어도 본래 없는 공한 자리이기에 그 어떤 것도 본래 집착할 바가 없음을 깨달아 일체

부처님 자리에 밝게 한자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공! 오늘 00 영가님이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로 우리의 근본 부처 자리, 즉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에다 관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통합니다.

부족한 내 한 생각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생 무생을 돌로 보지 않는 자비스런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일체와 직결된 내 안에 모두 놓아간다면 전부 재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의 통신처를 믿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하는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을 자비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결실로 피어날 겁니다.

**굉장히 슬플 때가 많아요.**

**문)** 저는 굉장히 슬플 때가 많습니다. 지구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그 지구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의 지배를 안 받고 즐거워질 수가 있고 그것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답)** 당신부터 즐거워질 수 있어야, 즐거운 걸 알고 자기부터 알아야 남을 즐겁게 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의 육체를 건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죠. 남을 건질 수 있

는 의욕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려 해도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있기 때문에 아픈 줄도 알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모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부터 알아야죠? 내가 그걸 자세히 말로 하려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말로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자면, 당신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당신의 근본 주인이 있는 건 아십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아시죠? 통하지 못합니까? 나의 주인하고 나의 육체 나하고 통하지 못하는나고요?

이게 과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100% 한다고 할 수도 없겠지마는 나와 나를 발견하는 데는 무조건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붙으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관하는 것이 통할 때는 정수에게까지 찰나에 이루어져야 이게 관법(觀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너만아...' 그 주인공은 수억 겁을 거치면서 진화를 시키고 행성을 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지금도 이끌어 가지고 가는데 이끌어 가는 사람이 이끌어 가지고 가는 사람의 그 뜻을 물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무시 아닌 무시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걸로만 살게 돼 있지 더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더 주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다면 '주인공, 너만아 너의 육체를 건강하게 갖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의사로서 응신이 돼서 자기를 보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예전부터 이 공부는 은산철벽을 뚫는 거와 같고 바닷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배가 있으면 강이 없고 강이 있으면 배가 없으니 어찌 건너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마음이라면 한 찰나에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나 어떠한 고달픈 시련이나 또는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안 해요. "아유, 그런 건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들..." 하고 아주 즐겁게 살거든요. 그 모두가 아주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상 살림하는 거, 사는 거, 모두가, 우주의 섭류 돌아가는 것도, 과거 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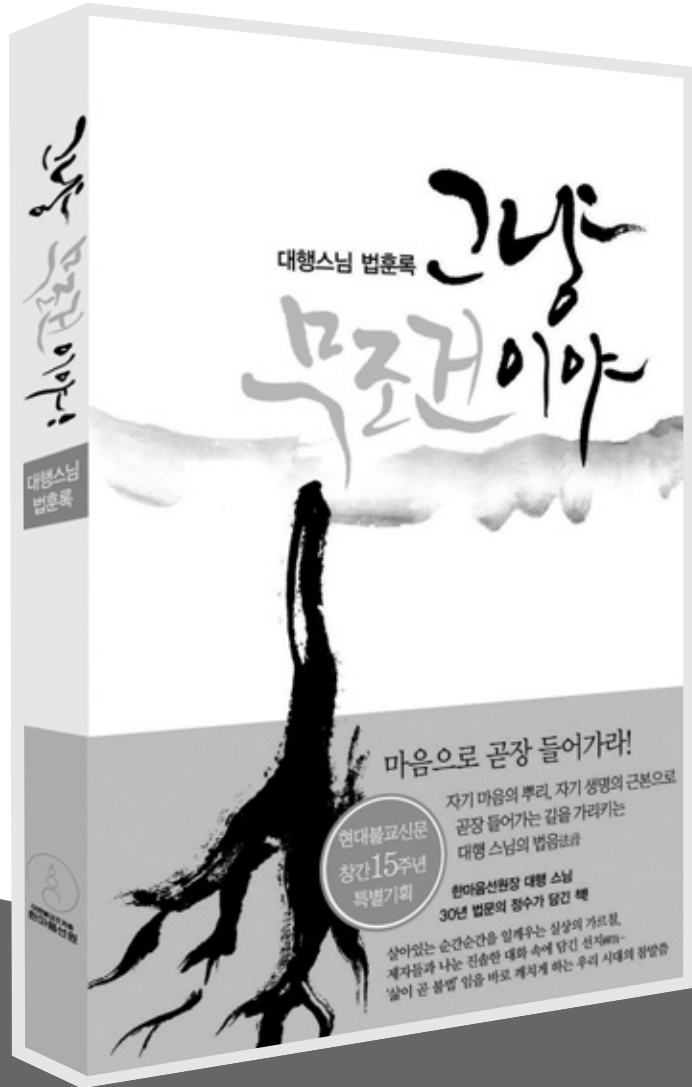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불을 자리가 있겠는가!

☞ 29면에서 계속

재 미레가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의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으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내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옛날에도 그랬죠. 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찾았니까, 어느 스님이 가다 보니 사방으로 절을 하고 온통 물을 떠 놓고 아반법석을 하니가 "자네한테 신이 있고 자네한테 주장자가 있고 자네한테 법신이 있는데 왜 탄 데 가서 자꾸 절을 하고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걸 듣고선 그대로 다 버리고 그냥 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찾았더니 살았답니다. 그런 게 걱정이 안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서 이 내 자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본래 더럽고 깨끗한 게 둘이 아닌 청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청정함을 알라.'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바닷물에 수없는 흙물이든 빗물이든 고름물이든 어떠한 물이든 거기 닦치면 그게 모두가 물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둘이 아닌 찼는 것뿐이니까, 이게 찼는 거. 파도가 치고 이라는 것도 다 마음의 장난이고 찼는 것뿐이니까. 찼는 것은 어느 물에도 젖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생각해서 모두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 가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명들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마음을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 하는 그 삶도 역시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을 이끌어 다니는 기사,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끌고 다닌다 이거죠.

나는요, 그래서 기쁘게 살고 있어요. 난 누구나가 보고 가고 누구나가 얘길 하면 그냥, 또 얘길 안 해도 알겠지마는 사람이 나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우지 모르죠? 남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거보다도 더한 일도, 집을 뺏기고 거리로 나왔을 때나 이런 때도 같이 웃어 줄 수 있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우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살면서 길에 지나가다라도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애들을 끌고 집을 내 쫓겨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죄 털어서 쥐야 배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가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외국에서는 신도들이, 회장님들이 이 경제를 다 다스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이런 공부를 가르쳐 줘서 너무나 감사해서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그 공을 못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꼭 갖다가, 운영하시라고 갖다 줘요.

어느 날 하루는 어떤 분이 아들이 아프다고요,

아들이 아픈데 병원을 아주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이건 고질병이 돼서 못 고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천도재를 지내러 왔어요. 여기 돈으로 한 오천 불은 될 거예요. 가져왔는데 그 오천 불 받아 마자 말입니다, 그 옆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시글세로 살았는데 시글세 값 보증금 낸 것이 다 까져서 인제는 나가라고 하니 어디로 나가니까?" 하면서 울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천도재 지낼 걸 찼죠. 재밌는 얘긴가요?

그래 천도재 지낼 사람이 와서 "스님, 왜 천도재 안 지내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네가 급하다 하니까 천도재는 금방 빨리 했다. 벌써 지내 줬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못 마땅해서 머무적머무적하더니 그냥 가더군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그냥 새벽같이 왔어요. 왜 왔느냐고 하니깐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앓고 그렇게 먹지 못하던 게 그냥 일어나서 먹더라, 그리고 일

해도 아니 되죠. 그러니 모든 것은 다내 자성에, 자성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맡겨 놓고 가고 있어요. 놓고 가고 있는데 걸레 빨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쪽 짜서 세숫대야에 담아 놓듯이 그렇게 놓고 가라 이겁니다. 금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신발 벗어 놓을 때 금이라면 합부로 아무렇게나 벗어 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금방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했다는 오산이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부인을 넷을 두었는데 자기가 죽게 돼서 그 첫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생략해서 말을 하겠어요. 죽을 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이 올 때마다 더우면 얇은 거 입고 추우면 두꺼운 거 입혀서 너를 그렇게 위했는데 아니, 가져는데 안 가느냐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몸중이

도 아니고 시발점도 아니예요. 내가 수시로 변해서 돌아가고 전화해서 돌아가니까. 2차원으로 있던 사람이 4차원으로 될 수도 있고 4차원에 있던 사람이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갈 수 있고 9차원 즉, 십이인연의 뜻을 다 알고 자유인이 돼서, 사방이 툭 터져서 오심력을, 즉 말하자면 원심력을 얻어서 원통을 굴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바깥에서 굴려야 원통은 굴러지지 그 원통 안에 들어서는 그 원통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깥에 서서야 이것이 굴러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통 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몸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생각 그렇게 놓고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자유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끝간 데 없이 그렇게 삶의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이 이분적인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쓸데없는

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한니까? 그래서 팔자운 명도 붙지 않는 자리요 병고도 붙지 않는 자리요 또 우환도 붙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불을 자리가 있겠는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지금 돌아가니까 그게 주인이자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안되는 것이 거기서 나올 때는 '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거기 맡기고 또 잡혀서 나오는 건 '아이구, 감사하구나!'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정히 그렇게 하는데도 안되는 거는 '아! 안되는 것도 법이려니 되게 굴리는 것도 거기서 굴려서 나올 거야.' 하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내가 밝아지거든요. 앞서의 카세트의 노래란 게 없어지고 운명 팔자 이런 게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고 지금 새로 넣는 것이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 편하니 좋지, 아래 중생들 제도하니 좋지, 위 부처님 자리 한자리 하니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하다 보면 여러분이 밝아지고 자기를 자기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둘이 아닌 도리를 또 배우느라고 자꾸자꾸 걸잡이한테 물어 가면서 공부해야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한번 왔다가 "스님, 이러 이리하옵나." 그러면 "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해, 그거." 이겁니다. 내가 항상 뭐 정성들여 이런 게 없습니다. "어, 그거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해."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 와서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재판이 걸려서도 그렇게 "그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해!" 이러거든요. 말을 여러 마디 해서 될 법한가? "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해."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와서 정말히 감사하다고 그럴 때 웃음이, 씩웃이 웃음이 아니면 너무나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것이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이것이 한마음의 뜻이 아니고 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이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 맡기십시오. '거기서부터 해결 못한다.' 하고요 자기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거니까요.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열반이지 이 몸뚱이가 죽고 나서 열반이 아니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한 번쯤은 몸부림쳐 볼 수 있고 한 번쯤을 미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나더라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시를 어디에 했나요? 이쪽에도 보시를 했고 저쪽에도 보시를 한 거죠? 양편을 다 살린 거죠? 이게 진짜 보시예요. 물질적으로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마음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그냥 정신으로써 보시하는 게 물질적으로 보시를 얼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대무변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섭류의 근본이 우리 근본 마음에 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인생을 편안하게 사세요.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신에 탄 사람도 그렇게 건지란 말입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입니다.

**똑똑하면 마음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문)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많으면 이 마음공부도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마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마음공부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답) 여러분이 안다는 게 있다면 아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 해도 아니 되고 안다

가 가겠습니까? 다 내버리고 가죠. 몸뚱이도 둘째 부인한테 또 가자고 "그렇게 내가 너를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하니까 "네가 좋아서 나 따라다녔지 아, 내가 좋아서 너를 따라 다녔느냐." 하더라는 얘기도. 돈이죠. 돈도 가져갈 수 없죠. 그 다음에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자기입니다. 인제, 그건 죽으나 사나 따라갑니다. 올 적에도 따라왔고 갈 적에도 따라가야죠. 따라간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죠. 그렇다고 모두가 허망하다 생각하진 마세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가을이 돼서 단풍이 떨어지긴 해도 그것을 몸이 허망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붓대를 잘 틀어 쥐었다면 한생각에 바로 잘 그려서 또 나올 수도 있고 못 그려서 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은 수십 광년 전에 미생물에서부터 생겨서 거듭 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전화돼서 사람으로까지 온 것이 여러분 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배 속에 시발점의 모습이 있는 거 하면 중점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중점이나, 시발점이나? 그게 없다. 중점

거고 행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조금만 느끼고 알았으면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열반이지 이 몸뚱이가 죽고 나서 열반이 아니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한 번쯤은 몸부림쳐 볼 수 있고 한 번쯤을 미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의식들에 꼬달리게 됩니다**

문) 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자꾸 내 의식들에 꼬달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꼬달리고 이런저런 감정에 꼬달리고 이런저런 분별심에 꼬달리고 스님,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리 마음이 복잡하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에 꼬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 이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지배인은 부처니까 그저 속지 말라.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서 모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내는 그 마음이 당당하게 나는 속지 않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할 때 그 앞서 입력된, 과거에 입력된 그 인과응보라든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깊이가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증,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은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형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환인연

임선된 6년간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 · 향 · 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 · 체력증진 · 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어드립니다**

특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혜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蔘 氣勢元** 6년간 명품홍삼 **기세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지초, 홍단초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절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지운 체험(씻는 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며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기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원미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읍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